

[순모임 교재]

그리스도인의 품격

에베소서 4:25-32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일상 속의 언어, 성품 그리고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신자의 고결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내가 들은 말 중에서 위로가 되었던 품격 있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1. 바울은 거룩한 성도의 삶은 말에서부터 드러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25, 29절). 바울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 무엇을 명령하나요? 신앙생활에서 세상과 구별된 언어 사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에게 변화된 언어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바울은 변화된 신자의 삶을 가리키면서 내면적으로 분을 품지 말고 외면적으로 도둑질 대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26, 28절). 사람이 분을 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분을 품는 대신 상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삶 속에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3.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32절).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진정한 용서를 위해 내가 해야 할 결단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32)